

## 언약과 그림 에 4:4-17

오늘 볼 말씀은 언약과 그림이다. 언약을 가진 사람은 현장을 살릴 그림을 주신다. 사도바울은 무턱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이 살아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언약이기 때문에 가슴에 언약으로 들어와 있고 기도제목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니, 당신이 주신 그림이니 당신이 성취하는 것이다. 왜 구태여 그림이라는 단어를 말하는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없는 사람은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모든 계획을 다 세웠었다. 그 계획을 내가 받아야 한다. 출만한 사람이 되면 주시는 것이다. 이 그림이 전도와 선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에도 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것과 열심히 기도하고 막사는 것과는 다르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여정과 관련해 중요한 말씀이 많다. 인생의 여정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시대적으로 표현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참고가 된다. 내 인생에 참고가 안되면 내가 손해본다.

먼저 창 3:15, 출 3:18, 희생제사로 이 약속의 피가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한다고 하였다. 이 약속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노예된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누리는 자, 언약으로 잡은 자, 고백하는 자 반드시 결과가 온다. 세 번째는 사 7:14,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였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그런데 그는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다. 이 놀라운 징조를 원하는 자가 없어서 그 문장에 썼다. 친히 내가 그냥 주겠다. 그래고 마태복음 16:16, 성경의 결론이고 앞에서 말한 세 말씀의 결론이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이다. 그를 언약으로 잡는 자는 반석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절대 이 교회를 못 이긴다고 하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서 마음껏 문을 열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씀들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의미를 가진 말씀들이 있다. 그러나 이 네 개의 구절이 대표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이 중대한 기준으로 준 것이 있는데 마 24:14이다. 세상에는 지진, 전쟁들이 일어나도 끝이 아니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후에야 끝이 올것이니 이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쓰지 말라는 것이다. 인간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그것에 잡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직 너는 나의 복음과 복음 운동에 잡히라는 말이다. 이것이 답이고, 이거 외에는 세상에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건데 너는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뭐냐? 이에 대해서 바른 응답을 하는 것이 바른 언약을 잡는 것이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언약으로 잡고 나왔다. 다윗은 아무 힘 없어 보이는 만군의 여호와와의 이름을 언약으로 잡고 나왔다. 성경은 다윗의 손을 들어줬다. 그것이 바른 언약이라는 뜻이다. 무엇을 언약으로 잡고 살려고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란다.

## 1. 언약과 그림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이다. 에스더는 당대 최고의 여성 사명자였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많은 제자들 중 항상 거론되었던 인물이다. 그가 고백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많은 메시지를 남겼다.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신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더의 이야기에는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나온다. 에스더 2장을 읽어보면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사촌오빠이다. 에스더 부모는 일찍 죽고 모르드개가 딸처럼 키웠다는 것이다. 아마 두 사람 사이에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때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아주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유다사람을 전부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유가 뭐냐면 하만이 궁궐로 돌아올 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한명이 그 절을 안하는 것이다. 그게 모르드개였다. 이유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는 절을 안한다는 이유였다. 아마 하만에게 절하는게 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앙심을 품은 총리가 모르드개만 죽이는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유다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 해서 경비는 내가 델테니 이런 민족 다 죽이자고 조서를 받았다. 그래서 전국에 연락했다. 몇월 몇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다. 통곡하고 굶은 베옷을 입고 난리가 났다. 모르드개도 굶은 베옷 입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왕궁 앞 광장에 있었다. 이것을 알고 에스더가 말렸는데, 모르드개가 말을 안 들었다. 자기가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하니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나가게 된 것이다.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가면 왕이 위험하기 때문에 허락없이 들어가면 그냥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만이 모르드개를 어떻게 죽일까 장대에 달까 많은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 죽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민족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오히려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전세계에 알린 것이다. 적어도 바벨론 전체에는 그 소문이 퍼졌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이들은 내 백성이야. 손대지 마.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나지 너희가 아니야. 내가 결정할테니 너희는 손대지 마. 내 백성을 손대는 자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총리도 필요 없다. 다 죽는다. 하나님 메시지이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이다.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들어와서 언약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때부터 영적인 힘이 생긴다. 영적인 힘이 생기면 사람이 바뀌게 된다. 그 바뀐 것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응답이다. 되게 되어 있다. 어디에서 이것을 얻는가? 그게 그리스도이다. 이런 역사는 다니엘에게서도 일어났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은 건지고 똑같은 굴에 던져진 사람들은 다 죽었다. 잊어버리면 안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셨다. 이것 없이 정복만 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다. 비록 노예포로 속국 저주같은 모습이지만 그들이 오히려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꼭 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싹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이것이 작품이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작품교회가 되는 것이다. 오늘 에스더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 사람은 모르드개였다는 것이다. 그는 언약의 사람이었다. 에스더 3장을 보면 상세하게 써 있다. 하

만 총리에게 모두가 절하는데, 그만 안 절했다. 이유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 안했다는 것이다. 하만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다 절하는데 모르드개만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백성이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절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었다. 그래도 절 안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생명 걸고 오직을 한 사람이었다.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이렇게 살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도 신경 안쓰는 것이다. 알고도 신경 안쓰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 놀라운 역전이다.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유대인이 다 죽게 되었는데 모르드개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지, 이유가 뭔지, 내용이 뭔지 그림을 주시는 것이다. 언약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눈을 갖게 되어 있다. 나는 가졌는데, 왜 눈이 안열리나, 하는 사람은 두려워라. 이 하나님의 계획과 눈이 그림인 것이다. 에스더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절대 에스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귀중한 사명자였다. 그러나 이 그림 부분을 이야기 하면 모르드개에게 더 크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넘기는 중요한 일을 했지만 전체를 이끌어 간 사람은 모르드개였다. 순간 순간 쓰임을 받은 제자들도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를 보고 이끌어 갈 제자 또한 필요하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란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근본은 그리스도 누리고 조금씩 눈이 열리며 성장해가는 것이다. 높이 올라간 만큼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다. 영적으로 더 깊어진 만큼 시야도 넓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다. 그러나 바울이 가진 그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다. 큰 그림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기도의 세계가 전 세계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 기도의 세계가 내 문제 뿐이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는 에스더가 왕궁에 왕후로 뽑히기 위해 들어갈 때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옛날에 이것이 잘 이해가 안되었다. 그냥 무슨 이유가 있겠지 했다. 상황을 다 알수는 없지만 모르드개 생각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게 유익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모르드개의 신앙고백과 같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말로 구원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너가 아니어도 구원하겠지만 니가 들어오면 쓰임 받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손해 많이 본다. 잘못 생각하면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절대 아닐 것이다. 그는 믿음대로 에스더를 이끌어 간 것이다. 그 상황에 맞게 니가 뭐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르드개는 이 모든 사람을 지휘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언약대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 언약과 그림을 가진 사람은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있다. 근본 언약이 항상 있어야 한다. 없이 그림을 그릴려면 자기가 스스로 우습게 생각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림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유는 복음이다.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의 평생이었고 전도였다. 현장을 죽이고 살리는게 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 사도 바울은 현장을 죽이는 일은 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의 전도운동이 그 당시에는 바울의 그림 안에 다 들어와 있었

다. 살리고 죽이고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자기 맘대로 한다는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수 있다. 우리도. 내 맘대로 하는게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그 현장에 성취되는 모든 것이 내게 다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는 언약이 그 현장에 있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이 그 현장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림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이고 사역자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에스더같은 인생도 귀하지만 모르드개처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사람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과 말씀과 눈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현장과 시대를 이끌어 갔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이 그 현장이다. 이런 현장에 이루어진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그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또 다른 언약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제목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다. 낙심될 때 이것 생각하면 힘이 나니까. 수시로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서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자에게 누리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이다. 놀라운 은혜이다. 내가 죄를 짓고 포로가 되었는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였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잡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언약의 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같이 생명건 고백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 너무나 귀한 일이다. 이런 사람 드물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모르드개처럼 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언약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중에 시간표 따라 우리에게 하나씩 주시는 것이다. 이 눈이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 복음은 노력이 아니다.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비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눈이 계속 열려야 한다. 그래야 인간이 된다. 그리고 인생이 살아난다. 발전을 한다. 생각도 발전, 기도도 발전, 전도도 발전, 인생도 발전. 자꾸만 더 깊어져야 한다. 생각도 깊어지고 마음도 인생도 다 깊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다. 인생은 간단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살면 영원히 간단한데 안 살면 영원히 복잡하다. 성경의 많은 결론중 하나, 인생은 간단하다. 언약에 답이 난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내 안에 믿어지면 아무 걱정 없다. 여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복이 있다. 회복 얼마나 귀한가? 치유 응답 얼마나 귀한가? 옛날에 그것으로 거의 만족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모든 문제 정복이다. 생각이 커지기 바란다. 그 생각에 따라 내 믿음의 고백도 커지게 된다. 그 고백의 크기에 따라 인생의 크기도 커진다. 인생이 커지고 나서도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한다. 치유와 회복과 정복 너무나 귀하다. 누리는 자에게는 어느날 찾아오는 단어이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골 2:3절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였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감춰진 것이 다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실행에 옮기고 고백하여 작품인생 작품 교회 될 줄 믿는다.